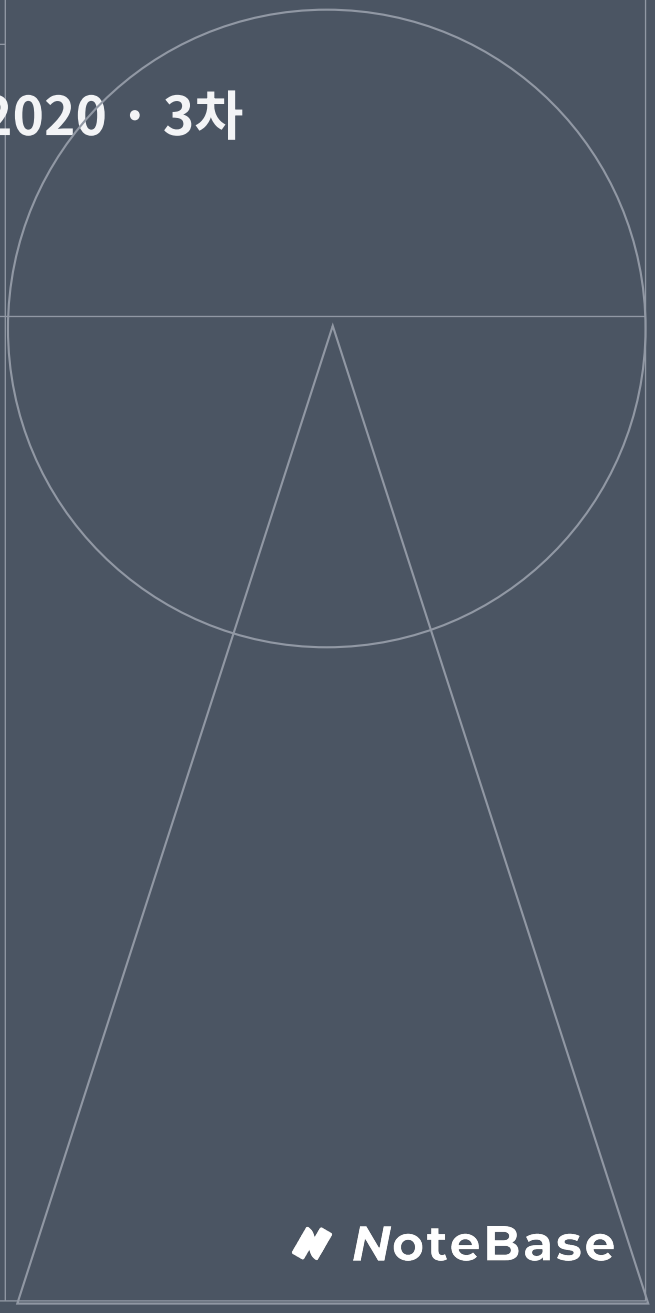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0 · 3차

문 1. 다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음운이 포함된 단어는?

<보기>
· 예사소리이다.
·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이다.

① 기관
② 항해
③ 수사
④ 행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음을 소리의 세기,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여 세 조건의 공통 음운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사소리이면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려 내는 파열음이고,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연구개음인 자음은 ㄱ이다. 즉 세 조건의 교집합은 ㄱ 하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관'에는 첫소리 ㄱ이 포함되어 있다. ㄱ은 예사소리·파열음·연구개음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② X — '항해'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틀리다. 이 단어의 ㅇ은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연구개음이지만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비음이므로 파열음 ㄱ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이 포함된 단어'여야 한다.
③ X — '수사'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틀리다. ㅅ은 예사소리이지만 잇몸에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마찰음이므로 연구개 파열음 ㄱ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이 포함된 단어'여야 한다.
④ X — '행정'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틀리다. ㅈ은 예사소리이지만 센입천장 파찰음이고, ㅇ은 연구개음이지만 비음이어서 어느 것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이 포함된 단어'여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항해’와 ‘행정’의 ㅇ도 여린입천장소리라는 점만 보고 고르면 틀린다. 조음 위치 하나만 맞는지 볼 것이 아니라 예사소리·파열음·연구개음의 세 분류가 동시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자음 목록의 교집합을 먼저 구한다. 예사소리 중 파열음은 ㄱ·ㄷ·ㅂ이고, 그중 연구개음은 ㄱ이므로 선지에서 ㄱ이 포함된 단어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ㄱ은 예사소리·파열음·연구개음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①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②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④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파생 접미사가 붙어 새 단어가 된 경우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용언의 활용형이 된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파생 접미사는 어근에 붙어 품사나 의미가 다른 새 단어를 만든다.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말은 문장에서 명사로 기능하고, 부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말은 부사로 기능한다.
명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명사절을 이루게 한다. 이때 용언의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앞에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높이'는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로서 '나는'을 꾸민다. 틀린 표현은 '명사'이며, 올바르게는 '부사'이다.
② X — '끓였다'의 '-이-'는 '끓다'를 '끓이다'로 만드는 사동 접미사이지만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붙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결합할 수 있는 일부 용언의 어근에 제한적으로 결합한다'이다.
③ O — '놀이'는 '놀-'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놀이' 안의 '놀-'은 문장에서 독립된 서술어로 기능하지 않는다.
④ X — '오시기'의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오-'와 '-기' 사이에 선어말 어미 '-시-'가 올 수 있다는 점은 '-기'가 용언의 활용에 관여하는 어미임을 보여 준다. 틀린 표현은 '명사이다'이며, 올바르게는 '명사절을 이루는 동사 활용형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형태가 같은 '-이'와 '-기'라도 기능은 같지 않다. ①의 '-이'는 부사를 만들고, ③의 '-이'는 명사를 만든다.
④에서는 '-기' 앞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사실을 오히려 파생 명사의 근거로 뒤집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기능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 해당 형태소가 새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인지, 용언을 활용시켜 명사절을 만드는 전성 어미인지 판단한다. 선어말 어미가 앞에 결합할 수 있으면 어미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높이'는 부사, '놀이'는 파생 명사, '오시기'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 활용형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시(가)와 수필(나)에서 공통으로 연상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 이육사, <교목>

(나)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겸양(謙讓)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 이육사, <계절의 오행>

① 謙讓之辭
② 見利思義
③ 捨生取義
④ 百尺竿頭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두 작품에 공통으로 드러난 굳센 의지와 자기희생의 태도를 사자성어의 뜻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捨生取義(사생취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의로움을 취한다는 뜻으로, 정의나 신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가)의 시적 화자는 고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謙讓之辭(겸양지사)는 겸손하게 사양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나)에 '겸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들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태도일 뿐, 두 작품의 중심인 신념을 위한 희생과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두 작품의 공통 태도=겸양지사'이며, 올바르게는 '두 작품의 공통 태도=사생취의'이다.
② X — 見利思義(견리사의)는 이익을 보았을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두 작품에는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선택하는 상황이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두 작품의 공통 태도=견리사의'이며, 올바르게는 '두 작품의 공통 태도=사생취의'이다.
③ O — 捨生取義(사생취의)는 생명까지 버리며 의를 취한다는 뜻이다. (가)의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자세와 (나)의 '내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 공통으로 보여 주는 자기희생적 신념에 가장 잘 맞는다.
④ X — 百尺竿頭(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장대 끝처럼 몹시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뜻한다. 두 작품은 위태로운 처지 자체보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틀린 연결은 '두 작품의 공통 태도=백척간두'이며, 올바르게는 '두 작품의 공통 태도=사생취의'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나)에 나온 '겸양'과 한자가 겹치고, ②도 '義'를 포함하므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글자나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 전체에 공통된 '신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이라는 태도를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의 공통 정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사자성어의 핵심 상황과 대조한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로운 신념을 지킴'이 중심이면 捨生取義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捨生取義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함', 즉 신념을 위한 자기희생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의 시를 읽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서정주, <춘향유문(春香遺文)>

* 도련님: 이몽룡

① <보기>의 시는 삶과 죽음,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② ㉠의 '나무'는 춘향이 도련님과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③ ㉡의 '검은 물'은 춘향이 저승에서 변하게 될 모습으로, 저승에서의 춘향을 가리킨다.
④ ㉢의 '소나기'는 영원히 춘향과 함께할 것이라 다짐하는 이몽룡의 극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시적 화자가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겠다는 영원한 사랑을 형상화한 작품에서, 밑줄 친 시어의 의미와 사랑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 시의 화자는 춘향이며, 죽은 뒤에도 '검은 물'이나 '구름', '소나기'로 변하여 도련님 곁에 있겠다고 말한다. '나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행복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검은 물'과 '소나기'는 죽음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춘향의 사랑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화자는 저승도 도련님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여기며, 물이나 구름으로 존재하더라도 곁에 있겠다고 한다. 따라서 삶과 죽음 및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 '나무'는 지난 오월 단옷날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함께 그늘 아래 서 있던 기억과 연결된다.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O — 춘향은 죽은 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를 수 있다고 상상한다. 따라서 '검은 물'은 저승에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춘향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이몽룡의 극적인 사랑'이다. 이 시의 화자는 춘향이며, '소나기'는 춘향이 구름에서 소나기로 변해 도련님 곁에 있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춘향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도련님 곁'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랑의 주체를 이몽룡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말하는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춘향이고, 나무·검은 물·구름·소나기로 이어지는 변신의 주체도 춘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화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어와 연결된 서술어의 주체를 추적한다. 이 작품에서는 '흐르거나', '날더라도',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의 주체가 모두 춘향이므로 사랑의 주체도 춘향이다.

암기 포인트

나무는 사랑의 추억, 검은 물·구름·소나기는 죽어서도 도련님 곁에 있으려는 춘향의 변신과 영원한 사랑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물품의 총 개수는?

· 고등어 열 손
· 북어 두 쾌
· 김 다섯 톳
· 삼치 두 뭇
· 조기 세 두름

① 540개
② 640개
③ 660개
④ 720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물품을 세는 전통 단위인 손·쾌·톳·뭇·두름의 수량을 각각 낱개로 바꾸어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고등어 1손은 2마리, 북어 1쾌는 20마리, 김 1톳은 100장, 삼치 1뭇은 10마리, 조기 1두름은 20마리이다.
따라서 고등어 열 손은 20개, 북어 두 쾌는 40개, 김 다섯 톳은 500개, 삼치 두 뭇은 20개, 조기 세 두름은 60개로 환산된다.

사용할 공식

$10 \times 2 + 2 \times 20 + 5 \times 100 + 2 \times 10 + 3 \times 20$
각 묶음 단위의 개수에 그 단위가 뜻하는 낱개 수를 곱하면 실제 물품 수가 되므로, 환산한 값을 모두 더한다.

계산 과정

1. 고등어: $10 \times 2 = 20$개
2. 북어: $2 \times 20 = 40$개
3. 김: $5 \times 100 = 500$개
4. 삼치: $2 \times 10 = 20$개
5. 조기: $3 \times 20 = 60$개
6. 총합: $20 + 40 + 500 + 20 + 60 = 640$개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540개는 각 단위를 정확히 환산해 더한 640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총개수는 640개이다.
② O — 환산한 수량의 합이 640개이므로 맞는다.
③ X — 660개는 정확한 합계보다 20개 많다. 올바른 총개수는 640개이다.
④ X — 720개는 정확한 합계보다 80개 많다. 올바른 총개수는 640개이다.

오답 포인트

김 1톳이 100장이라는 점과 손·쾌·뭇·두름의 기준 수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특히 모든 단위를 같은 묶음 수로 처리하거나 환산한 뒤 일부 항목을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위가 뜻하는 낱개 수를 먼저 적고, 제시된 묶음 수를 곱한 뒤 모든 물품의 수량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손 2, 쾌 20, 톳 100, 뭇 10, 두름 20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① 산만함
② 성급함
③ 뒷고생
④ 헛수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두 속담에 공통으로 드러난 의미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가물에 도랑 친다'는 물이 없는 가뭄에 도랑을 파는 것처럼 애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까마귀 미역 감듯'은 까마귀가 목욕해도 검은 빛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수고해도 보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두 속담의 공통 의미는 '헛수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산만함'은 생각이나 행동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어수선한 상태이다. 두 속담은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애써도 성과가 없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산만함'이 아니라 '헛수고'가 알맞다.
② X — '성급함'은 일을 차분히 살피지 않고 서두르는 태도이다. 두 속담에는 서두른다는 의미가 없으므로, '성급함'이 아니라 '헛수고'가 알맞다.
③ X — '뒷고생'은 일이 끝난 뒤에 겪는 고생을 뜻한다. 두 속담은 나중에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가 아무 소용이나 보람이 없다는 뜻이므로, '뒷고생'이 아니라 '헛수고'가 알맞다.
④ O — '헛수고'는 아무 보람이나 소용이 없는 수고를 뜻한다. 이는 ㉠과 ㉡의 공통 의미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 가뭄이 난 뒤 도랑을 친다는 모습만 보고 '성급함'이나 '뒷고생'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과 ㉡ 모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수고가 보람 없이 끝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속담의 공통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는 각 속담의 겉모습보다 결과에 주목한다. 행동을 해도 효력이 없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헛수고'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물에 도랑, 까마귀의 미역감기처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헛수고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공고문>의 ㉠~㉣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고문>
이곳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私有地)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이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법에 ㉢접촉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00월 00일 주인백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② ㉡: 문장 성분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이곳을'을 '이곳에'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③ ㉢: 맥락상 적절하지 못한 단어이므로 '저촉(抵觸)'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④ ㉣: 어법에 맞게 '삼가해 주시기'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고문의 중복 표현, 서술어의 호응, 문맥에 맞는 어휘, 용언의 올바른 활용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유지'는 개인이나 사법인이 소유한 토지이므로 앞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이라고 하면 의미가 겹친다. '출입하다'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결합하므로 '이곳에 출입하다'가 자연스럽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뜻에는 '저촉되다'를 쓴다. '삼가다'는 그 자체가 기본형인 동사이며 '삼가', '삼가니'처럼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의미가 겹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고치면 중복이 해소되므로 적절한 수정 의견이다.
② O — '출입하다'의 대상 장소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나타낸다. 따라서 '이곳에 마음대로 출입하거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접촉'은 서로 맞닿거나 가까이 대한다는 뜻이어서 문맥에 맞지 않는다.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뜻의 '저촉'으로 고쳐 '법에 저촉되다'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이다. '삼가다'에 '-아'가 결합하면 '삼가'가 되며, '삼가해'는 '삼가하다'라는 잘못된 기본형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원문의 '삼가 주시기'가 어법에 맞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답 포인트

'삼가 주세요'를 '삼가해 주세요'로 말하는 습관 때문에 ④를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본형은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이므로 '삼가해'가 아니라 '삼가'가 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 의견은 원문과 수정문을 차례로 대조하여 의미 중복이 실제로 사라지는지,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가 맞는지, 단어의 뜻이 문맥에 맞는지,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에는 '저촉', 장소에는 '출입', 행동은 '삼가다'이다. '삼가해'가 아니라 '삼가'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안개 속에 수수 잎 꼬이듯: 심술이 사납고 성질이 순순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에 원두한의 탄식: 애써 한 일이 뜻하지 아니한 변으로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을 한탄하는 말
㉢ ( )에 곡식이 병난다: 한참 낟알이 익어 갈 무렵에 때아닌 ( )이 불면 못쓰게 된다는 말

① 동풍
② 태풍
③ 북풍
④ 해풍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세 속담·관용 표현의 빈칸에 공통으로 결합하는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각 문장을 따로 추측하지 않고 실제로 굳어진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개념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제시된 표현은 모두 '동풍 안개 속에 수수 잎 꼬이듯', '동풍에 원두한의 탄식', '동풍에 곡식이 병난다'로 굳어져 있으므로 세 빈칸의 공통어는 '동풍'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풍'을 넣으면 ㉠ '동풍 안개 속에 수수 잎 꼬이듯', ㉡ '동풍에 원두한의 탄식', ㉢ '동풍에 곡식이 병난다'가 되어 세 표현이 모두 성립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세 빈칸에 '태풍'을 넣는 것이다. 태풍은 강한 열대성 저기압을 가리키며, 제시된 세 관용 표현의 공통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동풍'을 넣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세 빈칸에 '북풍'을 넣는 것이다.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제시된 표현들은 '북풍 안개 속에…', '북풍에 원두한의 탄식', '북풍에 곡식이 병난다'로 쓰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동풍'을 넣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세 빈칸에 '해풍'을 넣는 것이다.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며, 제시된 세 관용 표현의 공통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동풍'을 넣는다.

오답 포인트

㉢의 '곡식이 병난다'만 보고 피해가 큰 태풍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연 현상의 일반적 인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 문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고정된 어휘를 묻는다. 특히 ㉡ '원두한의 탄식'과 결합하는 말까지 함께 확인하면 '동풍'으로 좁혀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관용 표현에 공통어를 넣는 문제에서는 한 문장의 뜻에만 기대지 않고, 후보를 모든 빈칸에 차례로 넣어 실제로 굳어진 표현이 모두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동풍은 ‘안개 속 수수 잎’, ‘원두한의 탄식’, ‘곡식이 병난다’와 함께 기억한다.

NoteBase

문 9. 다음 <보기>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①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②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③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명사절의 표지와 안긴문장 내부의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절은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기'나 '-(으)ㅁ'이 붙어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이다. ㉠의 '내가 노래 부르기'는 '원한다'의 목적어이고, ㉡의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은 '몰랐다'의 목적어이므로 둘 다 명사절이다.
안긴문장 내부를 보면 ㉠은 '내가'가 주어이고 '노래'가 목적어이며, ㉡은 '이 지역 토양이'가 주어이고 '벼농사에'가 부사어이다. ㉡의 '이'는 '지역'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이다. ㉡의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며, 문장 전체에서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따라서 ㉠과 ㉡에는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에는 서술절', '㉡에는 관형절'이다. ㉠은 '-기', ㉡은 '-(으)ㅁ'으로 끝난 절이 각각 목적어로 기능하므로 둘 다 명사절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이다. 실제로 ㉠의 안긴문장에는 관형어가 없고, ㉡에는 '지역'을 꾸미는 관형사 '이'가 관형어로 쓰였다.
④ O — ㉠의 안긴문장 '내가 노래 부르기'에서 '노래'는 '부르다'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의 안긴문장에는 주어 '이 지역 토양이'와 부사어 '벼농사에'가 있을 뿐 목적어는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명사절이 문장 전체에서 맡는 목적어 역할과 명사절 내부의 문장 성분을 혼동하기 쉽다. ㉠과 ㉡은 모두 바깥 문장에서 목적어이지만, 안긴문장 내부의 목적어는 ㉠의 '노래'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안긴문장의 끝에 붙은 어미와 바깥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절의 종류를 판별한 뒤, 안긴문장만 따로 떼어 주어·목적어·관형어·부사어를 다시 분석한다.

암기 포인트

'-기, -(으)ㅁ'으로 끝나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이다. ㉠은 내부에 목적어 '노래'가 있고, ㉡은 내부에 관형어 '이'와 부사어 '벼농사에'가 있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5세기 국어의 모음 'ㅐ, ㅔ, ㅚ, ㅟ' 등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릿값(음가)이 바뀌었다.
㉡ 15세기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가'와 '이'가 있었지만, 점차 '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 '어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長短)을 표시하였으나, 그 장단(長短)은 점차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었다.
㉤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그 의미가 없어졌다.
㉥ '어여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조그맣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아름답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나타난 음운·문법·의미의 변화를 각각 판별한 뒤, 옳은 진술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음운 변화는 소릿값이나 운소가 달라지는 현상이고, 문법 변화는 조사와 같은 문법 요소의 형태·쓰임이 달라지는 현상이며, 의미 변화는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 O: 15세기의 'ㅐ, ㅔ, ㅚ, ㅟ'는 현대 국어와 소릿값이 달랐으므로 옳다.
㉡ X: 15세기 국어에는 현대의 주격 조사 '가'가 없었다. 주격 조사는 환경에 따라 '이', 'ㅣ',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고, '가'는 뒤에 나타났다.
㉢ O: '어리다'는 '어리석다,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에서 현대의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변했으므로 옳다.
㉣ X: 방점은 본래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이후 높낮이의 차이가 소리의 장단 차이로 이어졌으므로 진술의 변화 방향이 거꾸로이다.
㉤ O: '사랑하다'에는 '생각하다'라는 옛 의미가 있었으나 그 의미는 사라지고 현대에는 주로 '아끼고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옳다.
㉥ X: '어여쁘다'의 옛 의미는 '가엾다, 불쌍하다'이지 '조그맣다'가 아니다. 현대에는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뜻으로 변했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진술은 ㉠, ㉢, ㉤이므로 1개가 아니다. 올바른 개수는 3개이다.
② X: 옳은 진술은 ㉠, ㉢, ㉤이므로 2개가 아니다. 올바른 개수는 3개이다.
③ O: ㉠, ㉢, ㉤이 옳고 ㉡, ㉣, ㉥이 틀리므로 옳은 진술은 3개이다.
④ X: ㉡, ㉣, ㉥이 틀리므로 옳은 진술이 4개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올바른 개수는 3개이다.

오답 포인트

㉣은 '장단에서 높낮이로'라는 변화 방향을 뒤집어 놓았고, ㉥은 '어여쁘다'의 옛 의미를 '조그맣다'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현대 국어에 익숙한 주격 조사 '가'를 15세기에도 있었다고 본다면 ㉡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진술을 음운·문법·의미 변화로 나누고, '옛 형태·뜻 → 현대 형태·뜻'의 방향을 확인한다. 개수형 문항에서는 진술마다 O/X를 먼저 확정한 뒤 O의 수를 선택지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방점은 높낮이, 옛 '어리다'는 어리석다, 옛 '어여쁘다'는 가엾다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 어촌의 축복을 빌었다.

② 통발을 싣던 어부가 차에 받쳐 의식을 잃었다.

③ 선장은 승객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짜증 어린 성화를 바쳤다.

④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혀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형태와 소리가 비슷한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의 뜻과 문맥에 맞는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바치다'는 제물이나 정성 등을 드리거나, 남을 성가시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받치다'는 물건의 밑을 괴거나 떠받드는 뜻이다.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로서 차나 뿔 등에 부딪힘을 당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받다'의 사동사로서 물건을 팔거나 넘겨주게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므로 '바쳐'가 알맞다.
② X — 어부가 차에 부딪힘을 당했다는 피동의 뜻이므로 '받쳐'가 아니라 '받혀'라고 해야 한다. '받치다'는 밑에서 괴거나 떠받드는 뜻이다.
③ O — '성화를 바치다'는 남을 몹시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한다는 뜻이므로 '바쳤다'가 알맞다.
④ O — 여기서 '받히다'는 물건을 팔거나 넘겨주게 한다는 뜻의 '받다'의 사동사이다. 고추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넘겨도 옷 한 벌 사기 어렵다는 문맥이므로 '받혀도'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차에 받쳐'를 '차를 밑에서 받치다'와 혼동하기 쉽다. 충돌을 당한 대상에는 피동 표현인 '받히다'를 써서 '차에 받혀'라고 한다. 또한 ③의 '성화를 바치다'와 ④의 사동사 '받히다'는 일상에서 덜 익숙하지만 올바른 쓰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드리거나 성가시게 하는 뜻이면 '바치다', 밑에서 괴는 뜻이면 '받치다', 차나 뿔 등에 부딪힘을 당하는 뜻이면 '받히다'로 구별한다. 문장에 '차에'처럼 충돌의 원인이 나타나면 피동형 '받혀'를 우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물은 바치고, 밑은 받치며, 차에는 받힌다.

NoteBase

문 12. 다음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이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① 오만(傲慢)
② 독선(獨善)
③ 편견(偏見)
④ 아집(我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반복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시적 발상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한쪽으로 치우쳐 바라보는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견은 충분하고 공정한 근거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다. 오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이고, 독선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태도이며, 아집은 자기 생각이나 입장에 완고하게 집착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오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인데, 이 시에는 화자가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거나 남을 깔보는 내용이 없다. '오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양분하여 바라보는 '편견'이 알맞다.
② X — 독선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남의 의견을 배척하는 태도인데, 시의 중심은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는 데 있지 않다. '독선'이 아니라 사람을 두 부류로 단정하는 '편견'이 알맞다.
③ O — 다양한 사람을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양분하고, 마지막에는 그러한 이분법적 믿음 자체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눈다. 이는 사람과 세상을 한쪽 기준으로 단정하는 '편견'을 풍자하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아집은 자기 생각이나 입장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태도인데, 시는 특정 신념에 대한 집착보다 사람을 단순한 두 범주로 나누는 시각을 드러낸다. '아집'이 아니라 '편견'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마지막의 '믿는 사람'만 보고 독선이나 아집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반복되는 핵심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며, 시가 겨냥하는 것은 고집의 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치우친 시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고를 때 반복되는 표현과 마지막 행의 반전을 함께 본다. 우월감이면 오만, 자기만 옳다고 하며 타인을 배척하면 독선,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아집, 근거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면 편견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오만은 남을 낮춤, 독선은 자기만 옳음, 아집은 자기 생각에 집착, 편견은 치우친 판단이다.

NoteBase

문 1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展望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이상학이란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염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몰락이란 근대 이성주의가 더 이상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사유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오타르는 1960년대까지 비판적 사고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구했으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자신이 고안한 '표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그것에 ⓑ相應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리오타르는 비판적 사고가 권력에 봉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안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밖으로의 표류'를 강조한다. 즉 폐쇄적인 논리 체계 내에서 맴도는 비판과 부정이 그 체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전망을 동반하여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류'인 것이다.

리오타르는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復權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언어, 정치, 경제, 성,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을 욕망의 강도에 따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칸트의 글 제목을 패러디한 글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칸트의 글에 함축된 근대적 전체주의의 ⓓ全鰒을 시도한다. 글의 마지막에 그는 "전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라고 하면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을 고한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가 '계몽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세기 이후의 근대화는 '포스트모던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트모던의 기획은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판의 도구에서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근대적 이성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가치'에 담긴 전체 이념을 기초로 했던 근대적 역사관의 실효성 상실, 전체성과 통일성의 해체, 그에 따른 주체와 역사 그리고 진보 개념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폴란드의 도시

NoteBase

① 리오타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폐쇄적인 논리 체계 혹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②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주의의 몰락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③ 리오타르는 표현될 수 없는 것, 활성화되지 않았던 차이 등은 이성주의 철학 때문에 표현될 수 없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④ 리오타르가 죽었다고 선언한 주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의 주체가 아닌 근대적 이성에 기초한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주체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아도르노와 리오타르의 비판을 글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주의가 인류의 행복과 진보를 이루리라는 전망과 달리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리오타르는 폐쇄적인 체계 안의 비판을 넘어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표류'를 주장했으며, 근대적 이성에 기초한 전체성·통일성과 그에 따른 주체·역사·진보 개념의 해체를 지향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리오타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표류'는 폐쇄적인 논리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선지의 해석이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아도르노가 '근대 이성주의의 몰락을 예상하고도 문제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는 표현이다. 글에서 아도르노가 비판한 것은 근대 이성주의가 내세운 유토피아적 전망과 달리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올바르게는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주의가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하고 비극적 결과를 낳은 것을 비판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리오타르는 억압·소외된 것을 복권하고 감추어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 했으며,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성주의 철학의 전체성과 통일성이 표현되지 못한 것과 차이를 억압했다는 인식에 해당한다.
④ O. 글에서 '주체의 죽음'은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 및 근대적 이성의 해체와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죽는 주체는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니라 근대적 이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유한다고 전제된 주체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아도르노의 비판 대상을 '근대 이성주의가 낳은 비극적 결과'에서 '몰락을 예상하고도 예방책을 세우지 못한 태도'로 바꾸었다. 글에는 아도르노가 몰락을 미리 예상했다거나 예방 대책을 세워야 했다는 내용이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철학자의 주장과 비판 대상을 본문 표현에 대응시킨다. 본문에 없는 '예상', '예방 대책'처럼 시간 관계나 행위가 새로 덧붙은 선지는 부적절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의 비극적 귀결을 비판하고, 리오타르는 전체성에서 벗어나는 표류와 차이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NoteBase

문 14. ⓐ~ⓓ 중 한자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展望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이상학이란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염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몰락이란 근대 이성주의가 더 이상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사유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오타르는 1960년대까지 비판적 사고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구했으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자신이 고안한 '표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그것에 ⓑ相應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리오타르는 비판적 사고가 권력에 봉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안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밖으로의 표류'를 강조한다. 즉 폐쇄적인 논리 체계 내에서 맴도는 비판과 부정이 그 체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전망을 동반하여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류'인 것이다.

리오타르는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復權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언어, 정치, 경제, 성,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을 욕망의 강도에 따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칸트의 글 제목을 패러디한 글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칸트의 글에 함축된 근대적 전체주의의 ⓓ全鰒을 시도한다. 글의 마지막에 그는 "전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라고 하면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을 고한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가 '계몽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세기 이후의 근대화는 '포스트모던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트모던의 기획은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판의 도구에서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근대적 이성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가치'에 담긴 전체 이념을 기초로 했던 근대적 역사관의

NoteBase

실효성 상실, 전체성과 통일성의 해체, 그에 따른 주체와 역사 그리고 진보 개념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폴란드의 도시

① ⓐ 展望
② ⓑ 相應
③ ⓒ 復權
④ ⓓ 全鰒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음이 같더라도 각 한자의 뜻이 문맥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발음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문장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각 한자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
展望은 앞날을 내다봄, 相應은 서로 응하여 잘 맞음, 復權은 잃었던 권리나 지위를 되찾음, 顚覆은 기존의 체제나 질서를 뒤엎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展望은 '앞날을 내다봄'을 뜻하므로 '유토피아적 전망'이라는 문맥에 알맞다.
② O — 相應은 '서로 응하여 잘 맞음'을 뜻하므로 '실천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고방식'이라는 문맥에 알맞다.
③ O — 復權은 '잃었던 권리나 지위를 되찾게 함'을 뜻하므로 억압되고 소외된 것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X — 틀린 표현은 '全鰒'이다. 全은 '온전할 전', 鰒은 '전복 복'이므로 기존의 사상이나 질서를 뒤엎는다는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뒤엎음'을 뜻하는 '顚覆'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全鰒과 문맥에 맞는 顚覆은 모두 '전복'으로 읽히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 발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한자 표기까지 맞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밑줄 친 말의 문맥상 뜻을 우리말로 바꾼 다음, 제시된 각 한자의 뜻이 그 의미를 이루는지 확인한다.
동음이의 한자어는 음이 아니라 뜻을 기준으로 가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체제나 질서를 뒤엎는 전복은 顚覆이고, 全鰒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과 ㉡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展望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이상학이란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염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몰락이란 근대 이성주의가 더 이상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사유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오타르는 1960년대까지 비판적 사고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구했으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자신이 고안한 '표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그것에 ⓑ相應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리오타르는 비판적 사고가 권력에 봉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안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밖으로의 표류'를 강조한다. 즉 폐쇄적인 논리 체계 내에서 맴도는 비판과 부정이 그 체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전망을 동반하여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류'인 것이다.

리오타르는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復權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언어, 정치, 경제, 성,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을 욕망의 강도에 따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칸트의 글 제목을 패러디한 글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칸트의 글에 함축된 근대적 전체주의의 ⓓ全鰒을 시도한다. 글의 마지막에 그는 "전체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라고 하면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을 고한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가 '계몽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세기 이후의 근대화는 '포스트모던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트모던의 기획은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판의 도구에서 지배의 도구로 전락한 근대적 이성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가치'에 담긴 전체 이념을 기초로 했던 근대적 역사관의

NoteBase

실효성 상실, 전체성과 통일성의 해체, 그에 따른 주체와 역사 그리고 진보 개념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폴란드의 도시

① ㉠은 근대적 이성에 포함된 이념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의 변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② ㉡은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이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한 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③ ㉠과 달리 ㉡은 이성적 사유가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④ ㉠과 달리 ㉡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적 이성에 대한 ㉠ 아도르노 등의 비판적 견해와 ㉡ 칸트·헤겔의 긍정적 견해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아도르노 등: 근대적 이성이 인류의 행복과 진보를 실현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와 비극적 디스토피아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한다.
㉡ 칸트·헤겔: 이성적 사유를 통해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결정적 차이는 근대적 이성을 진보의 동력으로 보는지, 전체주의와 억압을 낳은 대상으로 비판하는지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근대적 이성에 포함된 이념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의 변질에 문제가 있다'이다. ㉠은 근대 이성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디스토피아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올바르게는 ㉠이 근대적 이성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그 결과를 문제 삼았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이 '근대적 이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한 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해체의 관점은 ㉡이 아니라 ㉠에서 이어지는 포스트모던 사유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이 이성적 사유를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보았다고 해야 한다.
③ O — ㉡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함으로써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근대 이성주의의 몰락을 선언한 ㉠의 견해와 대조되므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았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 이성을 서구의 계몽과 근대화,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보았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과 ㉡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놓거나 ㉠의 비판을 단순한 기능 변질의 문제로 축소한다. 특히 '체계의 해체'는 칸트·헤겔의 입장이 아니라 근대적 이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던 사유의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성으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여 진보한다'는 표현은 칸트·헤겔 쪽에, '전체주의·디스토피아·형이상학의 몰락·해체'라는 표현은 아도르노와 그 연장선의 포스트모던 사유 쪽에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칸트·헤겔은 이성과 진보,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의 전체주의적 귀결에 대한 비판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앞부분의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근거로 일반 진술, 구체적 사례, 대조, 관점 전환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 → ㉡ → ㉤ → ㉠ → ㉣
㉢은 영어 공용화의 긍정적 측면이라는 중심 화제를 제시한다. ㉡의 '이러한 점'은 ㉢에서 말한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의 수립을 받아 그 의의를 평가한다. ㉤은 '특히'로 시작하여 그 긍정적 측면을 싱가포르의 사례로 구체화한다. ㉠의 '이는'은 바로 앞의 싱가포르 사례를 받아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조한다. 마지막으로 ㉣은 '그러나'를 통해 이러한 영어 공용화 국가들과 한국의 환경이 다르다는 한계를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need 뒤에서 ㉡으로 긍정성을 평가하는 흐름은 가능해 보이지만, ㉣의 '그러나'가 먼저 나오면 영어 공용화 국가와 한국의 차이로 논점이 전환된 뒤 ㉠이 다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대조로 되돌아가 흐름이 끊긴다. 틀린 배열은 '㉣ → ㉠'이고, 올바르게는 '㉁ → ㉠ → ㉣'이다.
② O — ㉢의 일반적 주장에 이어 ㉡이 그 긍정성을 평가하고, ㉁이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이 이를 말레이시아와 대조한 뒤, ㉣이 '그러나'로 한국과의 환경 차이를 제시하므로 자연스럽다.
③ X — ㉠의 '이는'은 말레이시아와 대비되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다원성 체득을 가리키므로 ㉁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배열은 '㉠ → ㉁'이고, 올바르게는 '㉁ → ㉠'이다.
④ X — ㉣의 '그러나'가 긍정적 사례와 대조 사례를 정리하기 전에 등장하고, ㉡의 '이러한 점'도 맨 뒤에 놓여 지시 대상과 평가 시점이 멀어진다. 틀린 배열은 '㉁ → ㉣ → ㉠ → ㉡'이고, 올바르게는 '㉡ → ㉁ → ㉠ → ㉣'이다.

오답 포인트

㉡의 '이러한 점'만 보고 ㉁ 바로 뒤에 붙이면 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인 연결은 ㉁의 싱가포르 사례를 받는 ㉠의 '이는'과, 앞의 긍정적 논의를 한국과의 차이로 전환하는 ㉣의 '그러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화제를 제시하는 일반 문장을 찾고, '이러한 점·이는'의 지시 대상을 바로 앞 문맥에서 연결한 다음, '특히'의 구체화와 '그러나'의 관점 전환이 놓일 자리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제시 → 의미 평가 → 구체적 사례 → 사례 대조 → '그러나'로 한계 전환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 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디,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 거리 잔상처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뒤뚱 지게목발 따로 놀고, 삽질이며 괭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 쓰기는 더 쓰는디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 도구 부셔 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겁주기라……. 뼈빠지게 일한다고 뼈 빠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 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① 구어체 표현과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② 4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지양한다.

③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④ 4·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어체·사투리·율격·언어유희가 작품의 민요적·향토적·판소리적 문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구어체는 실제 말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사투리는 특정 지역에서 쓰는 말이다. 민요적 율격은 반복되는 음보와 장단으로 리듬감을 만들며, 판소리 문체는 운율 있는 문장, 열거와 반복, 말맛이 살아 있는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지향하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추구한다는 뜻이고, '지양하다'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거나 버린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는디', '쓰는디', '넘 몸뚱이' 같은 말투는 구어체의 생동감을 드러낸다. '뼈빠지게 일한다'와 '뼈 빠진 값'처럼 같은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이어 쓰는 표현에서는 언어유희도 나타난다.
② X. 틀린 표현은 '향토적인 정서를 지양한다'이다. 반복되는 리듬과 토속적 말투는 민요적인 느낌을 만들고 향토적 정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거나 지향한다.
③ O. '보는디', '쓰는디', '넘'과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생활 현장과 민중의 말맛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④ O. '도리깨질 쟁기질',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처럼 일정한 장단의 구절을 나열하고 반복하는 문장은 판소리 사설의 운율과 말맛을 현대 소설 문체에 수용한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앞부분의 '4음보격', '민요적인 느낌'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마지막의 '지양한다'가 문맥과 반대이다. 이 작품의 사투리와 운율은 향토적 정서를 배제하지 않고 강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체 선지는 작품 속 실제 표현과 하나씩 대응시킨다. 사투리는 향토성·민중성, 반복되는 음보와 열거는 민요·판소리적 운율, 중의적인 반복은 언어유희와 연결하고, '지향'과 '지양'처럼 방향이 반대인 어휘를 끝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향은 추구, 지양은 배제이다. 사투리와 반복적 율격은 향토적·민중적 말맛을 강화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②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타인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등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에 대한 자조와 반성이 나타나 있다.

④ 화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화자의 시간적 위치와 자기 성찰의 내용을 시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상적 형식은 현재보다 뒤의 시점에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방식이다. 이 시의 화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가정한 미래의 위치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질투에 이끌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을 자조적으로 성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② O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의 시점을 설정하고, 그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이미 지나간 일처럼 돌아보며 시상을 전개한다.

③ O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에는 질투가 삶을 움직인 힘이었던 사실에 대한 자조가 드러나며, 이어지는 고백에는 그러한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난다.

④ O
'어리석게도',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미래의 화자가 현재의 삶을 회상한다는 점을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의 대비'로 오해하기 쉽다. 이 시의 시간 구조는 두 삶의 대조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돌아보는 가상적 회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시간 표현으로 화자의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각 선지의 서술이 실제 시구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는 미래 시점의 설정이고, '질투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는 자기 성찰의 근거이다.

암기 포인트

미래에서 현재를 회상하고, 질투와 자기애의 부재를 반성한다.

NoteBase

문 19.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녀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 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뢴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중 략]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NoteBase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 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밭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 박지원, <호질(虎叱)>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함.
* 오상(五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 사강(四綱):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

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고 있다.
③ 사건의 전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④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에 실제로 드러난 서술 방식과 그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시대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 여부, 언어유희, 인물의 말과 행동, 의인화가 확인 대상이다.

핵심 개념

시대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는 특정 시대의 제도·풍속·생활상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동음이의어 활용은 소리는 같거나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말을 연결하는 언어유희이며,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글은 특정 시대의 제도나 풍속,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북곽 선생의 말과 행동 및 범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이다.
② O — 범이 '유(儒)'와 '유(諛)'의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 선비를 아첨하는 자와 연결한다. 이러한 동음이의어의 언어유희로 북곽 선생과 위선적인 선비를 풍자한다.
③ O — 북곽 선생이 달아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범에게 절하며 아첨하는 행동, 북곽 선생과 범 및 농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이어진다.
④ O — 범이 사람처럼 말하며 인간의 형벌과 악행을 비판한다. 동물인 범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위선과 부도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작품에 '오상', '사강', 형벌 도구 같은 말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범의 인간 비판을 뒷받침하는 소재일 뿐, 특정 시대의 생활상이나 역사적 상황을 구체화한 서술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상 특징은 지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표현과 전개 방식으로 판단한다. 시대적 배경은 시대를 보여 주는 구체적 풍속·제도·생활 묘사가 있는지, 풍자는 언어유희·과장·의인화 등을 통해 비판 대상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호질》은 범의 의인화와 '유(儒)-유(諛)'의 언어유희로 위선적인 선비와 인간 사회를 풍자한다.

NoteBase

문 20.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녀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 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뢴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중략]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NoteBase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 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밭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 박지원, <호질(虎叱)>

* 유(儒): 선비.
* 유(諛): 아첨함.
* 오상(五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 사강(四綱):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

① 범은 인간이 말로는 악을 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많다고 주장한다.

② 북곽 선생은 남들의 이목(耳目)을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도망쳤다.

③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첨하는 북곽 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북곽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 범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지문의 표현에 근거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히 범의 발언과 북곽 선생의 행동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주체, 행동, 태도, 인과 관계를 지문의 해당 부분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북곽 선생은 위선과 아첨을 드러내고, 범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말로는 악을 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많다'이다. 범은 인간이 말로는 오상과 사강 같은 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형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악행을 저지른다고 비판한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말로 선을 권하지만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가 많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도망쳤다'이다. 북곽 선생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한 다리를 목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달아났다. 올바르게는 '남들의 이목을 몹시 신경 쓰며 우스꽝스럽고 다급한 모습으로 도망쳤다'이다.
③ O — 범은 북곽 선생이 평소에는 자신에게 온갖 나쁜 이름을 붙이다가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지적하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꾸짖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북곽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이다. 인간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여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고 주장한 주체는 범이다. 북곽 선생은 범을 칭송하고 고사를 인용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범이 북곽 선생의 평소 태도와 위기 상황에서의 아첨을 대비하여 그의 위선을 지적한 대목과 그대로 대응한다. ④는 실제로 본문에 나온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 비교'를 이용했지만, 그 말을 한 주체를 북곽 선생으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가'를 나누어 본문의 해당 문장과 대조한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도 발언 주체나 태도가 바뀌면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북곽 선생은 위선과 아첨, 범은 인간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이다.

NoteBase